



한국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왼쪽)과 선수들이 15일 합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밝은 표정으로 수비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 긴장감 대신 기대감... 거침없는 호랑이들

KIA, 합평 챌린저스필드서 한국시리즈 대비 훈련  
‘V11’ 막내 최원준 “MVP 되자는 생각으로 준비”

‘V12’를 향한 ‘호랑이 군단’의 포효가 합평에 울려 퍼졌다.  
KIA 타이거즈가 15일 합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한국시리즈를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  
완벽한 ‘가을잔치’를 위해 이날 챔피언스필드 잔디 보식 작업이 진행되면서, KIA는 장소를 합평으로 옮겨 챌린저스필드에서 훈련을 소화했다.  
간간히 이슬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훈련하기에는 최적의 날씨가 펼쳐졌다.  
반팔 차림의 선수들은 1구장과 2구장을 오가면서 체력·기술 훈련을 진행했다. 큰 무대에서는 세밀한 플레이도 중요한 만큼 투수·야수들이 상황을 설정, 이에 맞는 수비 포메이션 훈련도 이뤄졌다.  
D-데이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높아졌지만 선수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훈련을 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사령탑으로 첫 한국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이범호 감독은 “계획대로” 준비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평이다.  
이범호 감독은 전날 롯데 자이언츠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했다. KIA의 필승조 전상현과 정해영도 롯데를 상대로 실전을 소화했다. 평소보다 스피드는 덜 나왔지만 이범호 감독은 “이상 없다”고 설명했다.  
이범호 감독은 “안 던지다 던졌다. 다음 경기도 있고, 라이브도 있다. 스피드나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다. 관중 들어와서 긴장감 속에 게임을 하면 스피드는 2~3km 더 나올 것이다. 감각적으로도 올 시즌 마운드에서 많이 던졌던 선수들이라서 개막전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될 것이다. 포볼도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절정의감을 보여주고 있는 김도영도 기대감으로 지켜보고 있다.  
김도영은 상무와의 연습경기에서 이어 롯데를 상대로도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자신 있는 자신의 스윙으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만든 김도영은 경기가 끝

난 뒤 “감이 정말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 “한국시리즈 때 감이 떨어질까 걱정이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김도영.  
이범호 감독은 “시즌 초반 말고는 (감이) 떨어졌던 적이 거의 없다. 나도 해봤지만 하다가 페이스가 꼬꾸라지기도 한다. 그런데 그 언저리에서 계속 유지가 됐다. 홈런이 안 나왔을 뿐이지 안타는 계속 나왔다. 빗맞아도 워낙 타구가 빠르니까 내야 안타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안타도 많이 나오고 장타를 치는 느낌이었다. 발도 빠르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의치 않는데 아마 잘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도영이가 지난해 일본에서 큰 경기를 해봤다. 4만명 이상 들어서는 도쿄돔 같은 곳에서 경기를 했다”며 “요즘 젊은 애들이 더 긴장 안 하는 것 같다. 우리 때는 뭔가 좀 긴장하면서 못 할까 봐 그랬는데, 지금 친구들은 한국시리즈 크게 신경 안 쓰고 거침없이 하는 것 같다”고 김도영의 거침 없는 질주를 기대했다.  
KIA는 이날 넓은 챌린저스필드의 실내 연습장과 야구장 두 면을 활용해 집중력 있게 훈련을 진행했다. 이곳에서 갑을 갈았던 선수들에게는 분위기를 전환하고 새로운 동기 부여도 된 시간이 됐다.  
2017시즌 한국시리즈 ‘막내’에서 이번 가을에는 팀의 허리로 뒤편에 뒀던 최원준도 익숙한 곳에서 높은 곳을 올려봤다.  
최원준은 “상무에 있을 때도 합평에 와서 경기를 해서 이곳이 익숙하다. 예전 기억도 난다. 이곳에서 뛰면서 ‘1군에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한국시리즈를 준비하는 입장이 됐다”며 “그만큼 책임감도 더 생긴다. 내 플레이 하나로 한국시리즈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준비하고 있다. 정규시즌과는 다르게 큰 역할을 하면서 MVP가 될 수도 있다. MVP가 되자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뛴다”고 각오를 밝혔다.  
/합평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V12’ 최대 변수는 따뜻한 날씨”

‘8번째 한국시리즈’ KIA 최형우  
추운 날씨라면 힘으로 막겠지만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  
재밌게 경기하는 후배들 믿는다

산전수전을 겪은 ‘최고참’은 날씨를 ‘V12’ 변수로 꼽았다.  
정규시즌 우승으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KIA 타이거즈는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KIA 최고참 최형우(사진)도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한국시리즈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 왕조 시절의 주축이었던 최형우에게는 고향팀 유니폼을 입고 뛴 2017시즌에 이어 이번이 8번째 한국시리즈다.  
순승락 수석코치를 상대로 짜릿한 끝내기 추억도 가지고 있는 그는 이번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많은 기대를 받는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한국시리즈를 가장 많이 경험한 최고참이자 올 시즌 KIA의 ‘해결사’로 톱목히 역할을 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최형우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최형우는 후배들의 뜨거운 한국시리즈를 기다리고 있다.  
최형우는 “내 느낌에 애들이 잘할 것 같다. 우리 애들은 고민이 많고, 뭔가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하고 재미있게 한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크게 부담이 없이 해볼 수



었다. 팀이 전체적으로 괜찮으니까 내가 안 되더라도 뒤에서 커버를 해주면서 시즌을 치러와서 크게 부담이 없는 것이다”며 “그래서 우리 애들이 금방 (한국시리즈에) 적응할 것 같다. 한두 타석, 한 게임 못 치더라도 금방 잘할 것 같다. 조연이라고 해줄 게 없다”고 밝혔다.  
후배들을 믿고 있는 최형우, 경험은 많지만 큰 무대를 앞둔 긴장감은 똑같다.  
최형우는 “매년 개막전하고 시리즈는 이 나이에 도 긴장이 된다. 또 별짓 아닐 수도 있는데 지명타자로서는 첫 번째 시리즈다. 추운 날씨에

아 있다가 치는 것도 처음이어서 약간 긴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추운 날씨에 대한 걱정은 했지만 ‘날씨’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최형우의 설명이다.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던 올 시즌, 따뜻한 날씨 속에 포스트시즌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 합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진행된 훈련에서도 KIA 선수들은 반팔 차림으로 뛰어나기도 했다.  
따뜻한 날씨가 첫 지명타자로 나서는 최형우에게는 반갑지만, 그만큼 시리즈는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게 최형우의 전망이다.  
최형우는 “그 전에 지명타자 하는 것 보면 안에서 (추위에) 별별 떨면서 몸 열고 나가고 그랬다. 올해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 몸상태도 너무 좋다. 날씨가 좋으니까 컨디션이 처질 이유가 없고, 어떻게 보면 추워서 방망이가 안 돌아가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은 여름에 연습하는 것과 같다”며 “그 전에 포스트시즌과 다른 게 날씨다. 추울 때 강한 선수도 있겠지만 추우면 타자들 몸이 얼어서 150km 공이 오면 방망이가 안 나온다. 몸이 안 움직이는데 지금 날씨는 그냥 거의 시즌이다. 이게 시험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운 날씨라면 누가 올라오든 우리가 폭 쉬고 힘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유리하지도 않을 것 같다. 똑같이 양 팀이 시즌 치르듯이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김주형 PGA 단일 대회 3연패에 도전

김주형(22·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단일 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  
김주형은 1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파71)에서 열리는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총상금 700만 달러)에 출전한다.  
투어 통산 3승의 김주형은 지난 2년간 이 대회에서 자신의 2승째와 3승째를 수확했다.  
2022년 우승 당시에는 만 20세 3개월의 나이로 우승하면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20세 9개월)보다 더 빨리 2승 고지에 오르는 기록을 작성했다.  
작년에는 개인 첫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PGA 투어 사상 110여년 만의 최연소 타이틀 방어 기록



을 썼다.  
한국 선수로서는 두 번째로 PGA 투어 대회 2연패에 성공했던 김주형은 이제 전 인미답의 3연패에 도전한다.  
PGA 투어를 통틀어도 단일 대회 3연패는 2009~2011년 존디아 클래식(미국) 이후 10년 넘게 나오지 않았다.  
김주형은 올 시즌 23개 대회에 참가해 톱 10에는 2차례 들었다. 최고 성적은 6월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준우승이다.  
/연합뉴스

##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오늘 파주서 개막

세계1위 코다·5위 고진영 불참 속 한국(계) 연승 도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일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20만 달러)이 이번 주 개최된다.  
올해 BMW 챔피언십은 17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파주의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서원힐스 코스(파72·6666야드)에서 열린다.  
BMW 챔피언십에서는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지난해 이민지(호주)가 정상에 올라 모두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트로피를 가져간 바 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올해 대회엔 LPGA 투어 선수와 스폰서 초청 선수를 포함해 총 78명이 출전해 나흘간 컷 탈락 없이 경쟁을 펼친다.  
세계랭킹 ‘톱5’ 중엔 1위 넬리 코르다(미국)와

5위 고진영이 빠졌다.  
애초 출전이 예고됐던 코르다는 연습에서 가벼운 목 부상을 입었다며 이번 대회와 24~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메이뱅크 챔피언십까지 기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세계랭킹 2~4위인 릴리아 부(미국), 리디아 고, 인뤄닝(중국)은 모두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두고 8월 열린 2024 파리 올림픽에선 금메달을 목에 건 리디아 고는 지난달 말 후원사 주최 대회인 한국어 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10위)에 이어 또 한 번 한국 팬과 만난다.  
인뤄닝은 1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뷰익 상하이에서 투어 통산 4승째를 올린 데 이어 아시아에서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한국 선수 중에는 올해 1승을 올리고 꾸준한 면모를 보이는 유해란을 우승 후보로 꼽을 만하다.  
세계랭킹 9위인 유해란은 이번 시즌 21개 대회 중 절반 가까운 10개 대회에서 톱10에 진입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CME 글로벌 포인트 순위(2천259.39)와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101점)에서 모두 4위를 달리고 있고, 상금도 5위(231만4천839달러)에 자리해 최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다.  
베테랑 김세영의 상승세도 주목된다.  
LPGA 투어 통산 12승을 보유한 김세영은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엔 트로피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엔 5차례 톱10에 든 그는 특히 지난달 말 아칸소 챔피언십 3위에 오르고 지난주 뷰익 상하이는 공동 2위로 마치며 우승에 근접하고 있어서 국내 팬들 앞에서 정상을 향한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